

대중매체를 통한 신장 관련 정보 제공 실태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임동희 · 정지인 · 임형은 · 은백린 · 유기환 · 홍영숙 · 이주원

= Abstract =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Information Regarding Renal Diseases in Mass Media

Dong Hee Lim, M.D., Ji In Jung, M.D., Hyung Eun Yim, M.D., Baik-Lin Eun, M.D.
Kee Hwan Yoo, M.D., Young Sook Hong, M.D. and Joo Won Lee,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 We often have patients who acquired incorrect medical information from the mass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credibility of articles in newspapers and medical counseling on websites about renal diseases.

Methods : Kidney information was searched in 6 newspapers for the past 10 years, and 4 portal websites and 17 internet health counseling sites for the past 5 years. We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rs and evaluated credibility by giving points 3, 2, 1 to correct, mostly correct but ambiguous, and incorrect contents, respectively. We compared the credibility of the groups with each other.

Results : Sixty four articles from newspapers, and 789 and 506 medical counselings from portal websites and internet health counseling sites were selected, respectively. The kidney information providers in newspapers were medical journalists(doctors)(31.2%), kidney specialists(doctors)(23.4%) and so on. The consultants in the portal sites were doctors(49.1%)and anonymous reporters(49.9%). In internet health counseling sites, 91% of the consultants were doctors. All articles in the newspapers were credible. Doctors' answers were more credible than nonphysicians'(P=0.005) and anonymous contributors(P<0.001) in portal sites. In health counseling sites, doctors answered more reliably than nonphysicians.

Conclusion : The kidney information in newspapers was credible. It is important for questioners to confirm the type of consultants in websites. We suggest that doctors, especially kidney specialists need to increase their roles in offering information to mass media. (*J Korean Soc Pediatr Nephrol* 2008;12:47-53)

Key Words : Credibility, Mass media, Kidney information

서 론

과거에는 의학지식이나 정보가 의료인에 의해
독점되었던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의학지식이나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나 보호자

접수 : 2008년 3월 28일, 승인 : 2008년 4월 13일
책임저자 : 유기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고려대부속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Tel : 02)2626-3152, Fax : 02)2626-1249
E-mail : guroped@korea.ac.kr

들이 일간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미리 습득한 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빈도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이 잘못된 의학 정보에 노출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어 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중매체에 나타난 건강 관련 정보 중에 신장과 관련된 일간 신문 기사,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 내용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대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최근 약 10년간(1997년 1월-2007년 7월) 6개의 일간 신문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실렸던 신장과 관련된 정보 제공 기사를 검토하여 정보 제공자의 신분을 조사하고 기사 내용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2) 최근 약 5년간(2002년 1월-2007년 7월) 4개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야후, 네이버, 다음, 엠파스)를 통해 이루어진 신장 관련 건강상담 내용을 검토하여 정보 제공자의 신분을 조사하고 상담 내용

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3) 최근 약 5년간(2002년 1월-2007년 7월) 17개의 인터넷 건강상담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신장 관련 건강상담 내용을 검토하여 정보 제공자의 신분 및 상담내용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병,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내용의 정확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3점, 2점,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제공된 정보가 의학적으로 맞는 경우 3점, 의학적으로 대체로 맞는 내용이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2점, 의학적으로 명백히 틀린 정보가 일부분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1점으로 분류하였다. 정보 제공자별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건강상담, 인터넷 건강상담 사이트에서의 답변 중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답변, 의료인과 답변자 미상의 답변, 내과계와 외과계 의료인의 답변 정확성을 각각 서로 비교해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했다. 통계법은 Mann-Whitney Rank Sum Test를 이용했고 신뢰구간은 95%로 하였다.

결 과

총 64개의 일간 신문 기사와 789개의 포털 사이

Table 1. Results of Investigation Regarding Articles about Renal Diseases in Daily Newspapers

Information provider	Number(proportion)	point 1	point 2	point 3
Kidney specialist(doctors)*	15(23.4%)	0	0	15
Pediatrician	2(3.1%)	0	0	2
Urologist	5(7.8%)	0	0	5
General surgeon	1(1.6%)	0	0	1
Orthopedic surgeon	1(1.6%)	0	0	1
Oriental medical doctor	11(17.2%)	0	0	11
Medical journalist(doctors)	20(31.2%)	0	0	20
General journalist	8(12.5%)	0	0	8
Doctor of health science	1(1.6%)	0	0	1
Total	64(100%)	0	0	64

*Kidney specialists : doctors of pediatrics or internal medicine who specialized in nephrology

Table 2-1. Results of Investigation Regarding Medical Counseling in Internet Portal Websites-(1)

Consultant	Number(proportion)	point 1	point 2	point 3
Doctor of internal medicine	149(18.9%)	0	0	149
Urologist	177(22.4%)	0	1	176
Pediatrician	10(1.3%)	0	1	9
Doctor of obstetrics & gynecology	28(3.5%)	1	3	24
Doctor or family medicine	2(0.2%)	0	0	2
Public health doctor	1(0.1%)	0	0	1
Oriental medical doctor	21(2.7%)	1	9	11
Nonphysician	8(1.0%)	1	4	3
Anonymous consultant	393(49.9%)	54	107	232
Total	789(100%)	57	125	607

Table 2-2. Results of Investigation Regarding Medical Counseling in Internet Portal Websites-(2)

Consultant	Number(proportion)	point 1	point 2	point 3	mean ± S.D
Doctor	388(49.1%)	2	14	372	2.95 ± 0.23
Nonphysician	8(1.0%)	1	4	3	2.25 ± 0.71
Anonymous one	393(49.9%)	54	107	232	2.45 ± 0.72
Total	789(100%)	57	125	607	

Abbreviation :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1. Results of Investigation Regarding Medical Counseling in Internet Health Counseling Sites-(1)

Consultant	Number(proportion)	point 1	point 2	point 3
Doctor of nephrology(IM)	34(6.7%)	0	0	34
Doctor of internal medicine	204(40.3%)	1	1	202
Urologist	153(30.2%)	0	7	146
Pediatrician	18(3.5%)	0	1	17
Doctor of OB & GY	7(1.4%)	0	1	6
Doctor of family medicine	5(1.0%)	0	0	5
General physician	1(0.2%)	0	0	1
Oriental medical doctor	39(7.7%)	0	7	32
Nonphysician	34(6.8%)	7	13	14
Anonymous one	11(2.2%)	0	0	11
Total	506(100%)	8	30	468

Abbreviations : IM, internal medicine; OB & GY, obstetrics & gynecology

트 건강상담, 506개의 인터넷 건강상담 사이트 건강상담이 검색되었다.

일간 신문의 신장 관련 정보 기사는 85.9%가 의료인에 의해 제공됐고 전체 평균 3.0점으로 정 확한 내용이었다. 정보 제공자는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 신장 전문의(23.4%), 일반 소아청소년과 의 사(3.1%), 비뇨기과 의사(7.8%), 외과 의사(1.6%),

한 의사(17.2%), 의학전문기자(의사)(31.2%), 일반 기자(12.5%) 등이었다(Table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신장 관련 건강상담 중 46.3%가 의사들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그 비율 은 비뇨기과 의사(22.4%), 내과 의사(18.9%), 산 부인과 의사(3.5%), 소아청소년과 의사(1.3%), 가 정의학과 의사(0.2%) 등이었고, 2.7%는 한의사에

Table 3-2. Results of Investigation Regarding Medical Counseling in Internet Health Counseling Sites⁻(2)

Consultant	Number(proportion)	point 1	point 2	point 3	mean ± S.D
Doctor	461(91.0%)	1	17	443	2.96 ± 0.21
Nonphysician	34(6.8%)	7	13	14	2.21 ± 0.77
Anonymous one	11(2.2%)	0	0	11	3.00 ± 0.0
Total	506(100%)	8	30	468	

Abbreviation : S.D, standard deviation

의해 답변됐으며 전체의 49.9%가 답변자 신분 미상이었다(Table 2-1).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장 관련 건강 상담에서 정보 제공자가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 의사인 경우에 그들의 신장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의료인, 비의료인, 답변자 미상의 답변은 각각 평균 2.95 ± 0.23, 2.25 ± 0.71, 2.45 ± 0.72점이었다(Table 2-2). 의료인의 답변은 비의료인의 답변보다 정확했고($P=0.005$), 답변자 미상의 답변보다도 정확했다($P<0.001$). 내과계와 외과계 의료인의 답변 정확성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터넷 건강상담 사이트의 신장관련 상담은 91%가 의료인에 의해 답변됐고 의료인, 비의료인, 답변자 미상의 답변은 각각 평균 2.96 ± 0.21, 2.21 ± 0.77, 3.00 ± 0.0점이었다(Table 3-1, 3-2). 의료인의 답변은 비의료인의 답변보다 정확했고($P<0.001$), 답변자 미상의 답변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내과계와 외과계 의료인의 답변 정확성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실제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고 때로는 그릇된 정보 습득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는 대중 매체가 우리 생활 깊숙이 노출되어 있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보다 접근성이 좋고 개개인이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범람하는 대중 매체를 통한 건강 관련 정보의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나 연구가 지금까지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강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대중 매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를 보면 2000년도에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은 사람이 6천만명을 넘어섰고 이 이용자수는 과거 5년에 비해 수십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미국 인터넷 이용자수 약 1억 7천만명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료 정보를 얻었다[1].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는 실정이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세계 5위권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료 정보를 얻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을 통한 의료 정보 확산은 그 접근성과 신속성의 우수함에 반해 정보의 질을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 관련 정보의 질적 수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소수 있었다.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의료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는데 1999년 Kim 등[2]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아 발열에 대하여 국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의료 정보의 정확성을 분석하였을 때 네이버, 한글야후, 한글알타비스타, 정보탐정 등에서 검색한 45개 문서 중에서 판정할 수 없는 자료와 중복 자료를 제외한 33종 중에 14개(42%)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2000년 Shin 등[3]은 라이코스 코리아(Lycos Korea) 검색엔진에서 간염 검색어로 검색된 적절한 182개의 웹사이트의 과학적 건전성, 누락이나 과장, 유해성 등을 평가한 결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웹페이지는 73.1%,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웹페이지는 6.6%, 오류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웹페이지는 20.3%, 유해한 정보를 포함한 경우가 7.1%, 불필요한 건강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24.2%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등[4]은 2007년 발표한 논문에서 "위식도역류질환"과 "역류(성) 식도염"을 핵심 단어로 2006년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7개의 검색엔진에서 검색된 각각 상위 15개 웹사이트(총 108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을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위식도역류질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사이트마다 정보의 양과 내용에서 차이가 많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다. 국외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Impicciatore 등[5]은 199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아 발열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조사한 결과 41개 웹페이지 중 미리 정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자료의 수는 4개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Davison[6]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diet", "food", "nutrition" 등으로 검색하였을 때 167개 중 45%가 캐나다 정부에서 권고한 영양요법과 일치하지 않았다. 1998년 McClung 등[7]은 소아 설사에 대한 인터넷 의료 정보를 검색하여 평가해 본 결과 약 20%만이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 관련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연구도 있었다. 2007년 최 등[8]은 5개의 국내 일간 신문에 실린 361개의 피부과 관련 기사를 조사, 분류한 연구를 통해 기사의 정보 제공자는 피부과 전문의(39.0%), 한의사(21.5%), 비의료인(13.3%), 의사 외의 의료 관련 전문가(13.0%) 등이었으며 전체 기사의 67.4%

는 신뢰할 만한 것이었고 28.8%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3.8%는 피부과적 참고문헌을 근거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피부과 전문의나 다른 의료인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대부분 신뢰할 만한 것이었으나 비의료인에 의한 기사 또는 정보 제공자가 명시되지 않은 기사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05년 Mathur 등[9]의 논문에 따르면 5개의 검색엔진에 "scoliosis"라는 단어로 검색된 50개의 Web site를 분석한 결과 학문적인 사이트(44%), 의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18%), 상업적 사이트(16%),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트(12%),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이트(10%) 등이었으며 학문적 사이트와 의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우수한 반면 정체를 알 수 없거나 비의료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질적 수준이 낮은 내용이 많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일간 신문에 게재된 신장관련 정보 제공 기사는 대부분 관련분야의 전문의 또는 의학전문기자들에 의해 제공되었고 그 내용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된 신장 관련 건강상담 789건 중에 366건(46.4%)이 내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의사, 공중보건외에 의해 답변이 제공되었으며 21건(2.7%)이 한의사에 의해 답변되었다. 이들 답변 내용은 대체로 정확하였다. 조사대상 789건의 상담 답변중에 393건(49.9%)이 답변자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들의 건수가 의사에 의해 제공된 답변 건수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이들 답변자 미상의 답변 내용들 중에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상당수 있어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터넷 건강상담 사이트들에서 제공된 신장 관련 건강상담 조사 결과를 보면 관련 의사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대체로 정확하였으나, 일부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는 건강상담

사이트들에서는 부정확하거나 틀린 내용이 포함된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중에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운영자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답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권유 등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인터넷 건강상담 사이트에서는 답변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상담 의뢰자에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의 영향력 있는 일간 신문들에 실린 신장 관련 기사에는 대부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이나 정보에 대한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한 건강 상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익명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본인의 노출됨 없이 거리낌 없는 질문이나 상담을 의뢰하는 것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직접 대면 접촉하는 것보다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훨씬 높은 것도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건강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익명성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므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과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웹 사이트 내의 건강 상담에 답변을 하는 사람 중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빈도가 높았는데 그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 비의료인들에 의한 건강 상담은 잘못된 정보의 비율이 의료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진단과 치료법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건강상 피해와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저자들은 무분별하게 생성, 유통되는 인터넷상의 정보의 흐름 속에 일반인들 스스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정보 습득으로 인한 건강상의 해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의료인의 책임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인터넷 등 대중 매

체의 건강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평가 도구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논문들에서도 대중매체의 건강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평가함에 있어 제각기 각자의 기준을 세워 평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저자들은 나름의 평가 기준으로 정보 내용을 평가, 분류하였다. 대중매체 정보의 질 평가에 있어 객관화되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세운 질 평가 기준에 따라 정보를 분류할 시에 평가자의 주관이나 다소간에 개입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정보의 질 평가, 분류 과정에서 일부 분류가 애매한 내용에 대해 저자들의 주관적 평가가 완전히 배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이 본 연구의 한계로 사료된다. 국내에서 인터넷 의료 정보에 대한 질 평가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더 세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간지의 신장 관련 정보는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에서는 정보 제공자가 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상담 의뢰자에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대중매체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여러 분야의 의료인들이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 관련 정보의 전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저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의료인, 특히 신장 전문의들이 대중매체의 신장 관련 정보 제공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 글 요약

목적 :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이 잘못된 의학 정보에 노출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어 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신장 관련 정보 제공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대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최근 약 10년간 6개의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실린 신장 관련 정보 제공 기사, 최근 약 5년간 4개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야후, 네이버, 다음, 엠파스)와 17개의 인터넷 건강상담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상담 내용을 검토해 정보 제공자의 신분을 조사하고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해 3점, 2점, 1점으로 점수화했다. 정보 제공자별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건강상담, 인터넷 건강상담 사이트에서의 답변 중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답변, 의료인과 답변자 미상의 답변, 내과계와 외과계 의료인의 답변 정확성을 각각 서로 비교해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했다. 통계법은 Mann-Whitney Rank Sum Test, 신뢰구간은 95%를 이용하였다.

결 과 : 일간지의 신장 관련 정보 기사는 85.9%가 의료인에 의해 제공됐고 전체 평균 3.0점으로 정확한 내용이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신장 관련 건강상담 중 46.3%가 의사들에 의해, 2.7%가 한의사에 의해 답변됐으며 전체의 49.9%가 답변자 신분 미상이었다. 의료인, 비의료인, 답변자 미상의 답변은 각각 평균 2.95 ± 0.23 , 2.25 ± 0.71 , 2.45 ± 0.72 점이었다. 의료인의 답변은 비의료인의 답변보다 정확했고($P=0.005$), 답변자 미상의 답변보다도 정확했다($P<0.001$). 내과계와 외과계 의료인의 답변 정확성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터넷 건강상담 사이트의 신장관련 상담은 91%가 의료인에 의해 답변됐고 의료인, 비의료인, 답변자 미상의 답변은 각각 평균 2.96 ± 0.21 , 2.21 ± 0.77 , 3.00 ± 0.0 점이었다. 의료인의 답변은 비의료인의 답변보다 정확했고($P<0.001$), 답변자 미상의 답변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내과계와 외과계 의료인의 답변 정확성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일간지의 신장 관련 정보는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

에서는 정보 제공자가 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상담 의뢰자에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장 전문의들이 대중매체의 신장 관련 정보 제공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Kim SY. Review : internet health information. J Korean Acad Fam Med 2002;23:281-91.
- 2) Kim KS, Park HJ, Hwang JH, Kim SY, Hwang IH. The accuracy of medical information of internet in Korea-regarding fever of children. J Korean Acad Fam Med 1999; 20:68
- 3) Shin JH, Seo HG, Kim CH, Koh JS, Woo KH. The evaluation of scientific reliability of medical information on www in Korea through analyzing hepatitis information. J Korean Soc Med Inform 2000;6:73-88
- 4) Lee JS, Moon TG, Kim HJ, Lee HJ, Lee JH, S SG, et al. An evaluation of web-based informations about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s in Korea. Korean J Gastroenterol 2007;49:231-7.
- 5) Impicciatore P, Pandolfini C, Casella N, Bonati M. Reliability of health information for the public on the world wide web : systematic survey of advice on managing fever in children at home. BMJ 1997;314:1875-9.
- 6) Davison K. The quality of dietary information on the world wide web. Clin Perform Qual Health Care 1997;5:54-6.
- 7) McClung HJ, Murray RD, Heitlinger LA. The internet as a source for current patient information. Pediatrics 1998;101:E2.
- 8) Choi JE, Ahn HH, Kye YC. A study of the credibility of dermatologic articles in free newspapers. Korean J Dermatol 2007;45: 1132-8.
- 9) Mathur S, Shanti N, Brkaric M, Sood V, Kubeck J, Paulino C, et al. Surfing for scoliosis : the quality of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internet. Spine 2005;30:2695-700.